

“내년에 화순서 만나요”



전남도민체전 폐막... 광양시 첫 우승
수영 3관왕 이이나 최우수 선수상

전남도민의 스포츠 대축제 전남도민체
육대회가 광양시의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21일 영광군에서 개막한 제48회 전
라남도도민체육대회가 24일 오후 3시 폐
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벌어진 4일간
의 열전에서 광양시가 '전통의 강호' 여수
시를 따돌리고 대회 참가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시·도별 순위 집계결과 단체 종목 경기
에서 탄탄한 전력을 과시한 광양시가 종합
합계점 32,825점으로 대회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승팀인 여수시는 종합득점
32,675점으로 2위에 올랐고, 순천시
31,300점을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모범선수단에는 신안군 선수단이 선정
됐고, 전남육상경기연맹은 모범경기단체
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는 수영 3관왕(점
영 50m, 접영 100m, 혼계영 400m)에 오
른 이이나(여·순천시)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육상의 정종식(여수시)과 볼
링에 출전한 최복음(광양시)·박선영(여·
곡성군)도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
회 3관왕에 등극했다.

육상 김아름(여·목포시)을 비롯해 6명
의 선수는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지난 대회 16위에서 10위까지 뛰어오
른 진도군은 성취상의 영광을 안았다.

단체종목에서 축구는 장흥군, 테니스
는 완도군, 정구는 순천시, 배드민턴은 화
순군, 검도는 무안군이 우승기를 품에 안
았다.

여수시는 배구·탁구·씨름·유도 등 4개
의 단체종목에서 우승을 휩쓸었다.

담양군 사격팀은 단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 도민체전 28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남도의 미래 GLORY 영광에서’의 대
회 구호와 ‘천년의 빛 영광에서 하나되는
도민축제’, ‘천절 영광 꽃핀 우정 가슴마
다 전남 사랑’의 표어를 내건 이번 대회는
역대 대회 사상 처음으로 영광군에서 개
최됐다.

앞선 도민체전은 목포·여수·순천·광양
4개시와 해남군에서 윤번제로 개최되어
오다 지난 2006년부터 보성군·강진군·고
흥군 등 군단위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다.

21일부터 영광 스포터움을 비롯한 영
광군과 인근 나주·장성에서 개최된 이번
도민체전에는 22개 시·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천812명(선수 3천845명, 임원 1
천96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8개 종목
에서 실력을 겨뤘다.

영광군은 대회기간 동안 각 지역별 선
수단을 비롯해 2만5천명 이상의 관람객
이 군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번 도민 체전은 군 단위에서 개최
됐지만 새 숙박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읍·
면 마을회관을 선수단 숙소로 활용하면
서 성공적으로 숙박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 대회는 내년 4월 화순군에서 개최
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프로골퍼 레슨에 쓰린 는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광주국제골프박람회
를 찾은 관람객들이 김진철 프로골
퍼의 레슨을 지켜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생팀 돌풍 잠재워라”

광주 상무, 내일 홈서 강원과 격돌

2009프로축구 지역변동의 두 축 광주 상
무와 강원 FC가 격돌한다.

정규리그 1위 독주중인 상무가 26일 오후
2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신생팀 돌
풍’의 주역 강원을 상대로 2009 K-리그 7라
운드 경기를 치른다.

상무는 현재 4승1무1패(승점 13)로 3승2
무(승점 11)의 전북 현대를 따돌리고 지난 5
라운드부터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다.

올 시즌 K-리그에 첫 발을 댄 신생팀 강원
은 개막전에서 제주를 1-0으로 제압한 뒤, 2

라운드 경기에서는 서울을 2-1로 물리치며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2무1패를 기록하며
기세가 한 풀 꺾였지만 현재 2승2무1패(승점
8점)로 성남 일화와 공동 5위에 올라있다.

상무는 올 시즌 각각 3골을 기록하고 있는
신·구 공격수 김명중, 최성국의 득점포와 수
문장 김용대의 든든한 방어로 지난 2003년
K-리그에 참가한 이후 처음 1위에 올랐다.

최원권, 배효성, 박병규, 김태민 등 알토란
같은 ‘늦깎이 이등병’의 활약도 상무의 대도
약을 이끌고 있다.

‘만년 꼴찌’에서 1위로 변신한 상무는 3연
승 행진을 하다 지난 18일 광주 원정에 나서
전남 드래곤즈에 1-1로 비기며 연속 잇기에
실패했다. 하지만 올 시즌 4차례의 홈경기에서
실점 없이 3승1무를 기록한 만큼 강원과의
대결에서 ‘광주발 돌풍’을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다.

강원도 만만치 않은 승부를 예고한다. 지
난 6라운드에서 휴식을 취한 강원은 22일 대
전 시티즌과의 컵대회에서 3-0의 대승을 거
두며 상승세다.

한편 상무는 1위 등극을 기념하기 위해 강
원과의 경기가 열리는 26일 ‘1위의 감동은
시민과 함께’라는 이벤트를 열고, 학생 무료
입장 행사를 펼친다. 성인 입장권은 1천원에
판매되며 추첨을 통해 대형냉장고, 김치냉
장고 등의 경품도 증정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광주서 열려

내일 상무공원 인공암벽서

‘제21회 광주광역시 전국스포츠클라이밍
대회’가 26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인
공암벽에서 열린다.

(사)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회장 최경
주)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내년 월드컵
과 아시안컵 출전권이 부여되는 ‘코리아컵
시리즈 1차대회’를 겸하고 있어 내로라하는
국내 스포츠클라이머들이 대거 참여한다.

난이도 경기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남
녀 초등부와 학생부, 일반부, 장년부(45세
이상) 등 4개 종별로 나뉘어 치러지며,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및 상품이 주
어진다.

오전 9시 부분별 예선을 시작으로 결선까
지 당일 펼쳐진다. 경기는 미리 코스를 공개

하지 않고 시합을 시작하면서 코스를 한 눈
에 보고 오르는 온 사이트 리딩 방식으로 진
행된다.

각 시·도연맹에 선수등록을 했거나 광주
시연맹 소속 산악단체 회원이면 누구나 참
가할 수 있다. 24일 현재 참가 신청한 선수들
은 1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최경주 회장은 “스포츠클라이밍은 손가
락 한마디로 온 몸을 지탱함과 동시에 미묘
한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관
중들도 손에 땀을 쥐는 관전의 재미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등반경기대회는 지난 1983년 4월 월
출산 바람골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지난
2001년 상무시민공원내 인공암벽이 개장하
면서 전국 대회로 발돋움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베르나르, 46초94 세계新

올림픽 챔피언 알랭 베르나르(26·프랑스)
가 수영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사상 처음으로
47초 벽을 무너뜨렸다.

베르나르는 24일 오전(한국시간)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린 프랑스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46초94에 터
치패드를 찍어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שלי반(호주)이 2008 베이징올림픽
준결승에서 세운 종전 최고 기록 47초05를
0.11초 앞당긴 새로운 세계 기록이다.

196cm 91kg에 양팔을 벌린 길이가 205cm
나 되는 천부적 체격 조건을 갖춘 베르나르
는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100m 결승
에서 שלי반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남자 자유형 100m 한국 최고 기록은
박태환(단국대)이 지난해 10월 제89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세운 48초94다.

생활 게시판

화측

▲소이길·신선심씨 장남 은석(금융감독
원)군 박기범(삼영주유소 대표)·노춘
이씨 장녀 서경(경기여자고교 교사)양=
25일(토) 오후 1시 서울 금융감독원 2층
강당.

▲김길원(전 광주일보 판매국장)·오점
희(예지한복)씨 차남 종현(광주은행 자금
시장부)군 이이섭·김명숙씨 장녀 송아(미
래에셋 맵스 자금운영)양= 25일(토) 오후
3시 서울 웨딩의 전당 1층(그랜드볼룸)

▲배중민(전 초등학교 교사)씨 아들 준
성군 오기주(전 광주시 남구 의사국장)씨
딸 형진양= 25일(토) 오후 1시 상무지구
광주상록웨딩홀 4층(장미홀)

CMB광주방송 컨벤션홀.

▲임유탉(전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리과장)씨 차녀 한송양 김동천(동천유
통 대표)씨 장남 양수(현대모비스 실장)
군= 26일(일) 오전 11시30분 광주메리
아트웨딩홀 2층 컨벤션홀.

▲문병란(전 조선대 교수·시인)·김숙
자씨 딸 현화양 김용진씨 동생 안석군=
26일(일) 오전 11시40분 무등파크호텔 4
층.

▲정찬용(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임미경씨 아들 은수(미래에셋 자산운용
팀)군 김중덕(농업)·이옥자씨 딸 민희
(회사원)양= 26일(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세종홀)

▲정찬용·김정자(전 21세기 여성라이
온스클럽 회장)씨 장남 일훈군 김재철씨
동생 재민양= 26일(일) 오전 11시40분
광주상록웨딩홀 4층(장미홀)

부음

▲김삼봉씨 별세 철영·넉순·선애·선미
씨 부친상= 발인 26일(일) 조선대학교병
원 장례식장 제 7분향소. 062-331-8907.

▲류봉환씨 별세 중흥·중걸·항자·항숙
씨 부친상= 발인 26일(일)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윤정순씨 별세 황천석·선옥·선자씨
모친상= 발인 26일(일) 주월동 나라장례
식장. 062-670-4444.

▲강경자씨 별세 김진후·창후·민후·인
준·경희씨 모친상= 발인 25일(토) 화동
금호 장례식장. 062-227-4000.

▲정선례씨 별세 조우연(전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조사2국장)씨 모친상= 발인
25일(토) 목포 삼성장례식장. 061-244-
2266.

Advertisement for '호박 나이트' (Pumpkin Night) featuring a man's face, dates 4월 30 and 5월 1, and promotional text about ticket prices and showtimes.